

안경환의 법과 문화



6·4 지방선거와 ‘새정치 민주연합’

서양 역사에 ‘신성로마제국’이란 게 있었다. 19세기 초에 공식적으로 해체될 때까지 중부유럽을 900년 이상 다스린 다인종, 다국적 제국이었다. 그러나 거창한 이름에 비해 허방할 정도로 부실한 존재였다.

종교를 바탕으로 한 ‘제국’의 가치 아래 모든 나라들 사이에 끝없는 패권 다툼이 이어졌고, 대체의 경우 기득권자의 담합으로 결말이 나곤 했다. 제국 신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박하다. 그래서 후세인들이 냉소한다. 신성도, 로마도 아니었다고. 논란 끝에 ‘새정치 민주연합’이 탄생했다. 한동안 ‘새 정치’라는 독자 노선을 표방하던 ‘안철수 신당’이 그처럼 비판하던 민주당과 결합할 의향을 갖추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환영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대 여당을 상대로 대전을 치르려면 그렇게라도 해서 불집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당의 출현 전후에 일어나는 각종 양태를 보면 ‘새정치’도, ‘민주’도 아닌 한갓 파당으로 전락할까봐 지레 걱정이자. 현대 민주주의의 참병은 정당이다. 국민의 의

사를 궁정에 반영하는 기제가 정당이다. 그래서 헌법이 보호하고 지원 육성을 천명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헌법 중에 가장 연조가 깊은 미국헌법에는 정당 조항이 없다. 새 나라를 만든 ‘헌법의 아버지’들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패거리들을 공익보다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파당’(faction)으로 보았던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 66년째 해를 맞는다. 그동안 도합 몇 개의 정당이 탄생했을까? 어느 정치학도의 조사에 의하면 1000 개도 넘는다고 한다. 선거 때 마다 우후죽순처럼 태어났다 이내 가을바람 앞의 낙엽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정당도 부지기수다.

외국인의 질문에 실로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진보, 보수, 중도, 각 각 한국 정치를 이끈 대표적인 정당 이름을 뭐라고 답할 것인가. 간판이 길수록 내부 사정이 복잡할 법하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신당의 약칭을 ‘새민련’으로 부르겠다고 한다. 과거 김중필씨의 ‘자민련’ 수준으로 폄하하겠다는 뉘나다. 여당으로서 품위 있는 행태가 아니다.

한 정당 내에서도 ‘계파’가 형성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다. 다만 미국헌법의 아버지가 경고한 것처럼 ‘파당’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일이다. 특정 계파가 청산대상이라느니, 누가 몰라나야 한다느니 등속의 비생산적인 구태를 되풀이하지 말기 바란다. 그런 행태야말로 ‘새 정치’를 위해서 청산해야 할 낡은 정치다. 안 그래도 취약한 대외 투쟁력만 약화시키고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신당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을 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기초단체 후보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같은 의제도 과연 ‘새정치’를 위해 목을 매어 관철시켜야 할 전제조건인지 아닌지. 물론 여야가 함께 내세운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공약사항이었다며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선과 동시에 내다버린 공약이 어디 그것뿐인가? 문제는 유권자인 국민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이다. 여당도 국민이 무서우면 끝까지 버틸 수 없다.

앞으로 꼭 두 달 후인 6월4일, 지방선거를 치른다. 전통적으로 야당세력이 강한 광주, 전남지역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의 내용이 문제다. 다른 생각, 다른 입장을 경청할 여유를 가져야 한다. 훌륭한 자질의 정부·여당의 후보가 나서면 그에게도 응분의 지지를 보내야 한다. 중앙정치인이 출신지역에 귀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 살림의 특성을 알뜰하게 챙겨줄 선량을 뽑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이후 과거와는 다른 정치판이 전개될 것이다. 2017년 대선 주자들의 각축전도 일찌감치 벌어질 것이다. 당권을 둘러싼 내부 경쟁도 가열될 것이다. 개헌 문제도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모처럼 결합한 ‘새정치’와 ‘민주’가 구태의연한 파당의 답합에 그치지 않도록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국민들은 정치에 실망해 있다. 새로운 ‘선(善)’을 보여주지 못하면, 또다시 구악에 무릎 꿇고 국민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 위원장〉

社說

목포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도 인재라니

〈人災〉

지난 2일 오후 발생한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 3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건설사가 근본 대책 마련은 미룬 채 공사를 강행해 사고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7개월 전부터 목포시와 건설사에 지반 침하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했지만 도로 균열 보수 등 땀집식 처방만 내놓으며 시간을 끌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 등으로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며 당권을 둘러싼 내부 경쟁도 가열될 것이다. 개헌 문제도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모처럼 결합한 ‘새정치’와 ‘민주’가 구태의연한 파당의 답합에 그치지 않도록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국민들은 정치에 실망해 있다. 새로운 ‘선(善)’을 보여주지 못하면, 또다시 구악에 무릎 꿇고 국민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달 받았을 것이라는 입장이자. 이에 대해 목포시는 “아파트 주변으로 다른 도로들이 생겨 소방도로의 기능이 사라져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소방도로를 폐지하면서도 해당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공청회를 열어 바로 처리한 게 과연 실력적이 있는가.

건설사 측도 “아파트 신축을 놓고 주민들과 건설사가 다투는 바람에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면서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예견된 사고인데도 강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목포시와 건설사는 사고 발생 후 예방 대책 수립과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등 호소들을 받고 있으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내고,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소방도로만 있었다면 아파트와 신축 현장과 거리가 멀어져 직접적인 영향은

수협마저 ‘작통 낙지’ 속여 판매해서야

어민들을 보호해야 할 수협에서 ‘작통 낙지’를 거래했다니 어이가 없다. 수협 광주공판장에서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가뜩이나 일본산 수산물의 방산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먹을 수산물도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상황 아닌가. 그런 가운데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 공급을 공언해 온 수협의 어처구니 없는 작태는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광주지청 형사3부는 1일 중국산 산낙지를 무인 빨낙지 등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위장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시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유통센터 내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중도매인 A(53) 씨를 구속 기소하고, 중도매인 B(48) 씨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까지 3년여간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 또는 ‘무인 빨낙지’로 속여 팔아갔다. 수산물 유통을 위해 정부와 규정한 4대 사회약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적발된 중도매인들에 대한 영업정지나 자격 박탈, 영구 퇴출 등 제재 조치를 마련해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낙지에 국내산 핏말을 붙여 놓고 팔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에 그동안 수협을 믿고 공판장을 찾았던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 와중에 진짜 국내산 수산물 공급을 공언해 온 수협의 어처구니 없는 작태는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원산지 거짓 표시를 비롯한 부정·불량 식품은 정부가 규정한 4대 사회약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적발된 중도매인들에 대한 영업정지나 자격 박탈, 영구 퇴출 등 제재 조치를 마련해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시대는 달라도 유명 팝스타들의 내한 공연은 팬들을 흥분시킨다. 그들이 남기고 간 에피소드는 또 수많은 이야기를 남긴다.

1992년 ‘뉴 키즈 온더 블록’ 공연은 약동으로 기억된다. 꽃미남 군단을 보려는 소녀팬들이 무대로 몰려 1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서다. 1969년 이화여대 강당의 클래식 리처드 공연은 흥분한 여자 관객들이 속옷을 투척했다는 이야기를 남

겨웠다. 2012년 레이디 가가의 콘서트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거침없는 무대 매너로 4만여 명의 관객을 장악한 레이디 가가는 대표곡 ‘포케 페이스’를 부를 때 객석은 말 그대로 광란의 도가니였다.

최근 음악팬들을 설레게 하는 굵직한 공연 소식이 연달아 터졌다. 그룹 ‘퀸’과 ‘비틀즈’ 멤버 폴 매카트니의 내한 소식이다. 8월14일 공연하는 ‘퀸’의 무대에서 4옥타브를 넘나드는 고(故) 프레디 머큐리의 자리는 아담 램버트가 메운다. 폴 매카트니는 5월28일 올림피크경기장 무대에 약관들 사이에서 객석과 무대가 하나된 ‘전설의 때창’으로 불린다.

내한 공연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2010년의 휘트니 휴스턴의 공연. 남편의 폭력, 약물 중독에 시달리던 그녀의 재기 무대였던 이날, 객석의 반응은 갈렸다. 트래이드 마크인 폭발적인 고음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표곡을 어쿠스틱 반주로 편곡해 불렀다. 필자는 웬지 모를 애뜻함에 감정이 더 이입됐었지만 대부분은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2년 후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는 쓸쓸해보였던 그녀의 뒷모습이

머큐리의 자리는 아담 램버트가 메운다. 폴 매카트니는 5월28일 올림피크경기장 무대에 약관들 사이에서 객석과 무대가 하나된 ‘전설의 때창’으로 불린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2010년의 휘트니 휴스턴의 공연. 남편의 폭력, 약물 중독에 시달리던 그녀의 재기 무대였던 이날, 객석의 반응은 갈렸다. 트래이드 마크인 폭발적인 고음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표곡을 어쿠스틱 반주로 편곡해 불렀다. 필자는 웬지 모를 애뜻함에 감정이 더 이입됐었지만 대부분은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2년 후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는 쓸쓸해보였던 그녀의 뒷모습이

머큐리의 자리는 아담 램버트가 메운다. 폴 매카트니는 5월28일 올림피크경기장 무대에 약관들 사이에서 객석과 무대가 하나된 ‘전설의 때창’으로 불린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2010년의 휘트니 휴스턴의 공연. 남편의 폭력, 약물 중독에 시달리던 그녀의 재기 무대였던 이날, 객석의 반응은 갈렸다. 트래이드 마크인 폭발적인 고음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표곡을 어쿠스틱 반주로 편곡해 불렀다. 필자는 웬지 모를 애뜻함에 감정이 더 이입됐었지만 대부분은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2년 후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는 쓸쓸해보였던 그녀의 뒷모습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 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종교칼럼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있고 질서가 있다



이원재 광주무등교회 목사

지난해 봄 36시간을 걸쳐서 탄자니아 가라루에 있는 마사이족 마을을 찾았다. 그곳에서 저녁에 주민들과 영화를 보며 시간을 가졌다. 불빛 한 점 없는 캄캄한 밤하늘은 그야말로 별들의 천국이었다. 무수한 저 별들이 각자 자기의 체도를 따라 정확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새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눈에 익은 북두칠성이 바로 앞에 있었고, 비단을 깔아놓은 듯한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러 펼쳐있었다. 우리 눈엔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별들은 몇 광년이나 가야할 만큼 먼 거리에 있다고 한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돌면 하루가 가고,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 한해가 간다. 이것은 한 번도 변한 일이 없다. 계절도 그렇다. 겨울 다음엔 봄이 온다. 초목들이 물이 오르고 개나리, 목련, 진달래, 벚꽃이 만발하여 사람들은 산과 들로 유혹한다. 또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그 추운 겨울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냈을까?

참 신기하다. 봄인가 하면 어느덧 여름이다. 무더위와 씨름하다 보면 선선한 가을이 온다. 나뭇잎들이 각각각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된다. 이런 질서를 누가 조정할까? 저절로 되는 걸까? 자연현상이라고 막연히 넘겨 버릴 일인가?

어느 날 바닷가 모래밭을 거니는데 예쁜 꽃신 한 짝이 파도와 함께 뱅글고 있었다. ‘저 신발이 어여쁜 아가씨의 발에 신겨 있었더라면 한층 더 아름다웠을 텐데’라는 생각

이 들었다. 하지만 주인 없이 모래밭에 뱅글고 있는 신발은 아름답기보다는 처량해 보였다.

가정에서도 가장과 자녀의 역할이 각각 있다. 사회에도 직무에 따라 자신들의 자리가 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존경을 받는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포지션이 있다. 축구, 야구, 달리기 등 모든 경기에는 위치와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을 어기면 반칙이 된다.

우리 인간은 60억조의 세포로 되어있다고 한다. 오장육부가 있고 사지백체(四肢百體)가 있다. 각각 기능이 다 다르다. 자기의 역할분담이 있는 것이다. 세포 하나에도 대단한 조직이 있다고 한다.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은 신묘마측(神妙莫測)하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뤄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가는 법과 질서를 누가 만들었을까? 생김새, 목소리, 머리카락, 습관까지 부모를 닮는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닌가? 60억이나 되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 목소리도 지문도 다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를 일이다. 저절로 된 일은 하나도 없다. 반드시 원인이 있었기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닭이 먼저일까, 아니면 달걀이 먼저일까. 알이 있어야 병아리가 생기고, 닭이 있어야 알을 낳는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다. 바로 창조는 질서다. 신이 만물을 만들 때는 성체(成體)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이 입후보자로 나서고 있다.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적합한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그 사람이 인정해야 한다. 아무도 창조의 질서를 바꿀 수는 없다. 거스르면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욕심부리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자.

기고

심고, 가꾸고, 경영하다



김민영 정읍산림조합장·산림조합중앙회 비상임 감사

춘화경명(春和景明)이라 했는가? ‘봄날이 화창하고 경치가 맑고 아름답다’라는 말이다. 봄은 무채색의 대지를 화사한 빛깔로 물들여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한다. 겨우내 움츠렸던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 생명을 싹틔우고 꽃을 피워내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5일은 제69회 식목일이다. 2월 중순 남부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올해 나무심기가 4월 말까지 진행되면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만2000ha에 520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지게 된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수탈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동물조차도 살기 힘든 황폐

한 민둥산이었지만 온 국민과 행정, 산림조합이 힘을 합쳐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 최단 시일에 산림녹화에 성공했다.

식재 수준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1960~1970년대는 할벗은 산에 빠른 기간내에 녹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장속도가 빠른 속성수 위주의 아까시 나무·리기다 소나무·이태리 포플러 등을 심었고, 1980~1990년대에 들어서는 목재 생산용으로 낙엽송과 잣나무 등을 심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해 참나무·벚나무·편백나무·백합나무와 같은 바이오 순환림 위주로 식재했다. 앞으로는 숲을 잘 가꾸 더욱 경제성있는 산림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숲 가꾸기를 잘해 주면 햇볕이 숲속으로 들어와 큰 나무 밑 키 작은 나무와 미생물이 잘 자라고, 야생 동물들의 서식처와 보금자리를 만들어 줘 생태계가 안정되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준다.

또 비가 온 뒤 수분이 바로 증발하거나, 수량이 한계면에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줄여 숲속 땅 밑으로 스며들어가던 물이 서서히 흘러내린다. 이러한 숲의 기능

을 ‘녹색 댐’이라고 한다. ‘녹색 댐’의 역할이 클수록 수질 정화기능과 홍수 방지 기능이 커지고 가뭄이 들었을 때 물 공급이 늘어난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녹색 댐, 동·식물의 서식공간, 목재... 이처럼 숲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많다. 특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숲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09조원, 국민 1인당 216만원의 혜택을 누리라는 시대다.

요즘 각 가정에서 주말농장이 정원, 텃밭에 한 그루씩 소량의 나무심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인기 있는 수종으로는 유실수로 감나무·매실나무·대추나무·복분자 등이 있고, 왕메실·태상왕대추·감(이대감)·단감(태추)·슈퍼도 등 열매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호도와 불꽃신호 장기도 휴대 사용해야 한다.

봄 행락철을 맞아 등산 및 가족단위 여행을 가는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다. 차량의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현장을 가끔씩 목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사고로 인해 당황한 나머지 사고처리에 미흡하여

고속도로서 고장·사고 때 즉시 안전한 곳 대피를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란‘선형 교통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정차한 차량 및 이와 관련된 사람을 후속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6.3배 높으며, 야간시간대 발생률이 주간대비 2배 높다. 이는 야간에 후속 차량이 정방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선으로 길게 뻗은 고속도로는 속도나

거리 감각이 떨어진다. 따라서 앞차가 서있어도 마치 달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얼마전 남해(영암~순천) 고속도로에서 이와 같은 2차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한 상황이나 사고상황을 후미차량의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안전삼각대와

같은 고장차량표지를 설치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안전삼각대는 고장차량으로부터 100m이상 뒤에 설치해야 하며 밤에는 최소한 200m이상 뒤에 설치하고 다른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호봉과 불꽃신호 장기도 휴대 사용해야 한다.

봄 행락철을 맞아 등산 및 가족단위 여행을 가는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다. 차량의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현장을 가끔씩 목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사고로 인해 당황한 나머지 사고처리에 미흡하여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행중 고장이 나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 안에 있거나 자동차 주위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2차 사고를 예방을 위해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뒤에 가드레일 밖이나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 경찰이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신고해야 한다.

▲오정선·보성군 미려면